

살펴 보기

: 나눔으로 하나되는 KIHA

생명을 구하는 실천, 헌혈은 생명입니다.

박민수

대한산업보건협회 울산산업보건센터 사내기자

코로나19의 여파로 사회 모든 분야에서 어려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요즘이다. 누구라도 본인이 처한 상황이 가장 어렵고 힘들테지만 생명을 다루는 일보다 중요한 일은 없을 것이다. 최근에는 코로나19 이후로 급격히 줄어든 헌혈 인구로 당장 수술이 급한 환자와 가족들이 직접 혈액을 구하러 다녀야 하는 급박한 상황에 몰리는 일까지 생기고 있다고 한다.

그런 중에 지난 12월 울산에서는 가뭄에 단비와 같은 일이 생겨났다. 오랜 기간 울산산업보건센터(이하 울산센터)와 인연을 맺어오던 울산지역 굴지의



사업장 세 곳(2021년 12월 6일 세종공업(주), 2021년 12월 7일 (주)서영울산용연지점, 2021년 12월 10일 덕양산업(주))에서 헌혈에 참여하겠다는 연락이 온 것이다.

헌혈버스와 그 밖의 모든 장비, 그리고 헌혈을 진행하는 모든 인력들은 헌혈 전과 헌혈 중, 그리고 헌혈 후 철저한 소독으로 관리되고, 헌혈이 진행되는 동안은 철저히 방역 수칙을 지키고 진행한다.

하지만 버스 안이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헌혈이 이루어진다는 점과 외부인의 사내 출입이라는 부담 때문에 사업장 단체 헌혈이 어려운 요즘, 이 세 곳의 사업장에서 혈액 부족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배려해 준 것이다.

울산 지역은 자동차와 석유화학, 조선과 관련된 손꼽히는 대기업들이 모여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산업도시이다. 이번 헌혈을 계기로 울산지역 사업장 단체 헌혈을 활성화 시켜 혈액을 구하지 못하는 환자에게 새 생명의 빛을 줄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다. 🍷

